

한국농어촌공사 영덕·울진지사,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현장 홍보 실시

✎ 윤문수 기자 | Ⓜ 승인 2026.05.10 12:51



한국농어촌공사 영덕·울진지사,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현장 홍보 실시 (사진/한국농어촌공사 영덕·울진지사)

(서울일보/윤문수 기자) 한국농어촌공사 영덕·울진지사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5월 7일,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마을회관을 찾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.

‘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’은 고령 농업인(만 65세~만 84세)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,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(매도·매도조건부임대)하는 경우, 보조금(일시지급 또는 최대 10년간 분할지급)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

한국농어촌공사 영덕·울진지사,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현장 홍보 실시 (사진/한국농어촌공사 영덕·울진지사)

이날 홍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:1 맞춤형으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, 특히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지급 사례를 바탕으로 가입 조건과 혜택을 상세히 설명해 큰 관심을 끌었다.

손명훈 지사장은 “어버이날을 앞두고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”며, “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고령 농업인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

윤문수 기자 silbo1@daum.net